

THE 44th DDUIM EXHIBITION

2023.4.17 – 4.23

1980

1990

1st	1980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1th	1990	[남과북, 자유] 대전 현대화랑· 동승동 토탈 갤러리
2nd	1981	대전시민회관	12th	1991	[사랑, 돌출] 대전문화원· 동승동 토탈 갤러리
3rd	1982	대전시민회관	13th	1992	[환경]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4th	1983	대전시민회관	14th	1993	[Green] 대전 현대화랑
5th	1984	[동물을 주제로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디자인 포장센터	15th	1994	[Open, 열림] 대전 교보아케이드
6th	1985	[카렌다전] 대전시민회관· 디자인 포장센터	16th	1995	[세계화]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7th	1986	[무대디자인 포스터전] 대전시민회관· 명동 유네스코 회관	17th	1996	[96's Environment] 대전 교보아케이드
8th	1987	[책을 주제로 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18th	1997	[과소비]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9th	1988	[충청도 풍자전] 명동 금강 르노와르 전시관	19th	1998	[Fighting Korea] 대전시민회관
10th	1989	[똥] 명동시민회관· 명동 르노와르 전시관	20th	1999	[Trash] 대전시민회관



똥은 1980년 창립전 이래로 현재 44회를 맞이하는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전통있는 정기전입니다.
3, 4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0

2010

21st	2000	[이어쫄]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
22nd	2001	[Event 행사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23rd	2002	[책 홍보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24th	2003	[ART 포스터전] 대전 현대갤러리
25th	2004	[Object전]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26th	2005	[Emotion]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27th	2006	[With전] 연정국악 문화관
28th	2007	[공익광고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9th	2008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0th	2009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1st	2010	[환경살리기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2nd	2011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3rd	2012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4th	2013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5th	2014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6th	2015	[공익포스터전] 대전 KBS 갤러리
37th	2016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8th	2017	[공익포스터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시실
39th	2018	[공익포스터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40th	2019	[공익포스터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2020

41st	2020	[성 인지 감수성] 온라인 전시
42nd	2021	[PUBLIC SERVICE] 목원대학교 미술관

43rd	2022	[한국다움] 목원대학교 미술관
44th	2023	[SAVE THE ENVIRONMENT] 목원대학교 미술관



환경오염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함께하고자

SAVE THE ENVIROMENT를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디자인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44회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뽐 전시회의 뽐장 양우열입니다.

언제 끝날까 싶던 겨울이 순식간에 가버리고, 잊혔던 따듯함이 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새롭게 봄이 돌아오듯, 우리의 전시도 새로운 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설렘보단 여러 우려와 걱정이 세상을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일상에서 느끼고 있고, 이에 경각심을 가지며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을 순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생각해 보는 발화점이 될 수 있게끔 화두를 던지는 역할로서 저마다의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배우는 학생의 위치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믿고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불어 뽐 전시회를 위해 함께 도와준 뽐 준비 위원회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모든 3, 4학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제44회 뽐장 양우열

73 WORKS
SAVE THE ENVIRONMENT



- homeless ani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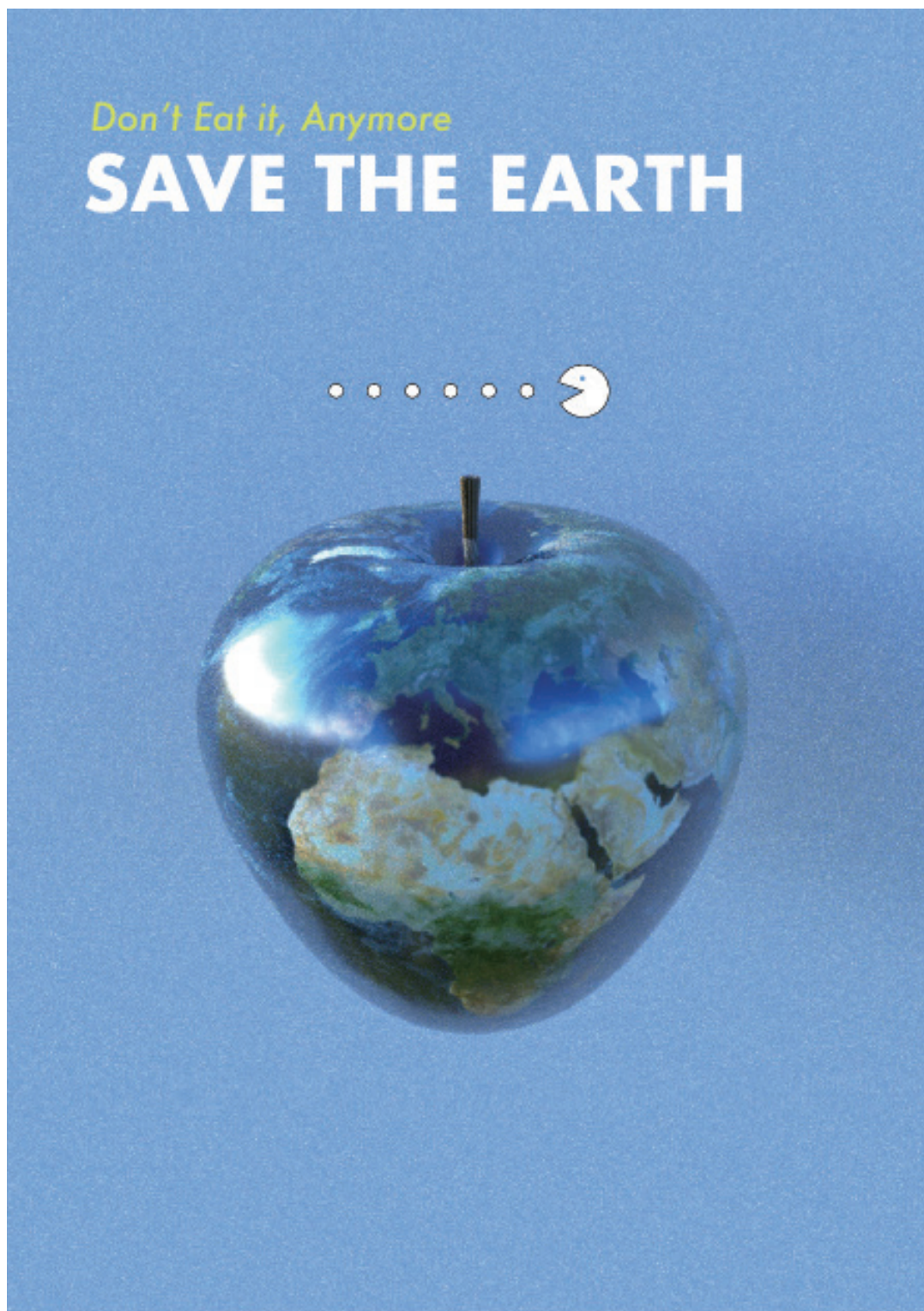
FAST FASHION



to be trash again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의류와 쇼핑으로 패스트 패션은 건강을 해치는 패스트 푸드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환경에 쓰레기로 돌아옵니다.

•
Fast fashion



•
Don't eat it, any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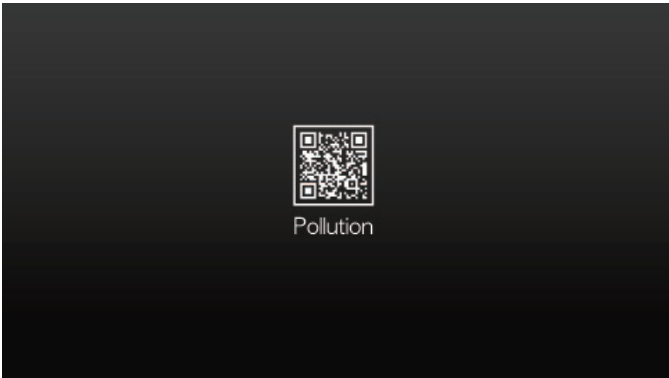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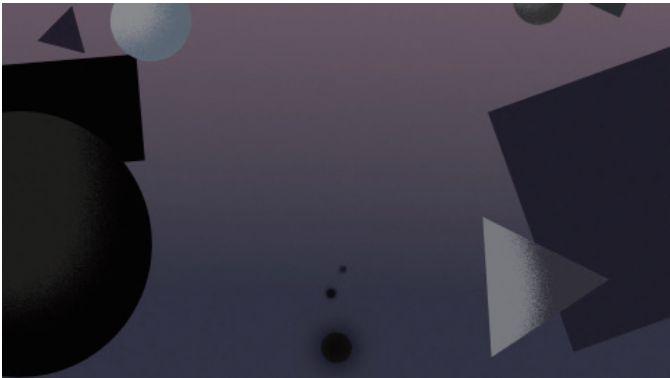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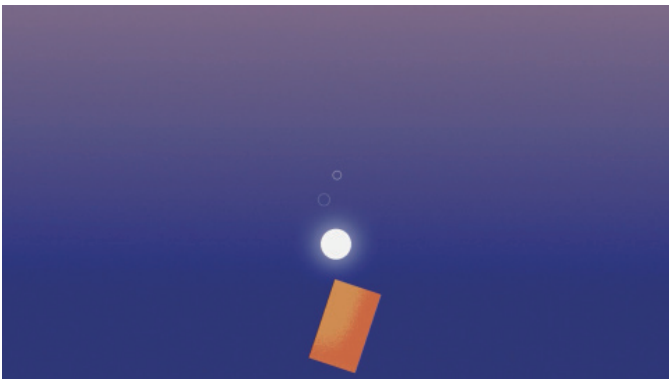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은 공기를 죽이는 무기입니다.



KESSCO

•
에어컨? 에어컨!



•
Pollution



PET ≠ PET

반려견은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kobaco
한국농림수산식품공사

KAPS
한국동물보호협회

•
PET≠PET



•
잡아먹히다.



•
UPCYCLING ONLY FOR YOU



•
범인은 바로 너!



동물이
인간을
지배한다면?

동물학대로 인해
인간에 그 횡포를 저질러도 모릅니다.

 **KAPS**
한국동물보호협회

•
인간부츠



•
의류 리사이클링 서비스 CPR

CPR

의류 리사이클링 서비스

CFR은 의원 제가를 감축을 위해 서로의 옷을 벗어,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01 ABOUT CPR

CPR은 Contribution+Protect+Recycle의 약자입니다.

의회출처 및 심의소속을 미지시한 C/P와도 함경으로 이해하는 지구촌 구상자는 의미없다. 한 두번 읽고 버려지는 외류 폐기를 감축을 위해 기부회 이사미팅을 통해 완결을 보코보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GOAL&VALUE

외투가림 순환

- 의무 재산관리를 통해 세상의 생명을 연결합니다.

참고문헌

- 배려권 의무를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듭니다.

기부문화

-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느낍니다

서비스를 통해 환경과 사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일찍이 기준을 바탕으로 결단하여 믿고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나눕니다.
 불만과도 생소하지만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03 PERSONA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싶어”

진주시/대학생/21세
 로깅 속 더 이상 읽지는 않지만 매끄럽고
 상대가 좋은 뜻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고민이



“특별한 날 얻을 수 있는 뜻을 대변하고 싶어”

평소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에 입을 옷을 사야할지 알아야 할게 고민이야.

04 LOGO SYSTEM



계구와 녹색의 푸른색을 도미노로 삼아 청어를 정화했고, 로고를 통해 우리와 환경, 개인과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05 SERVICE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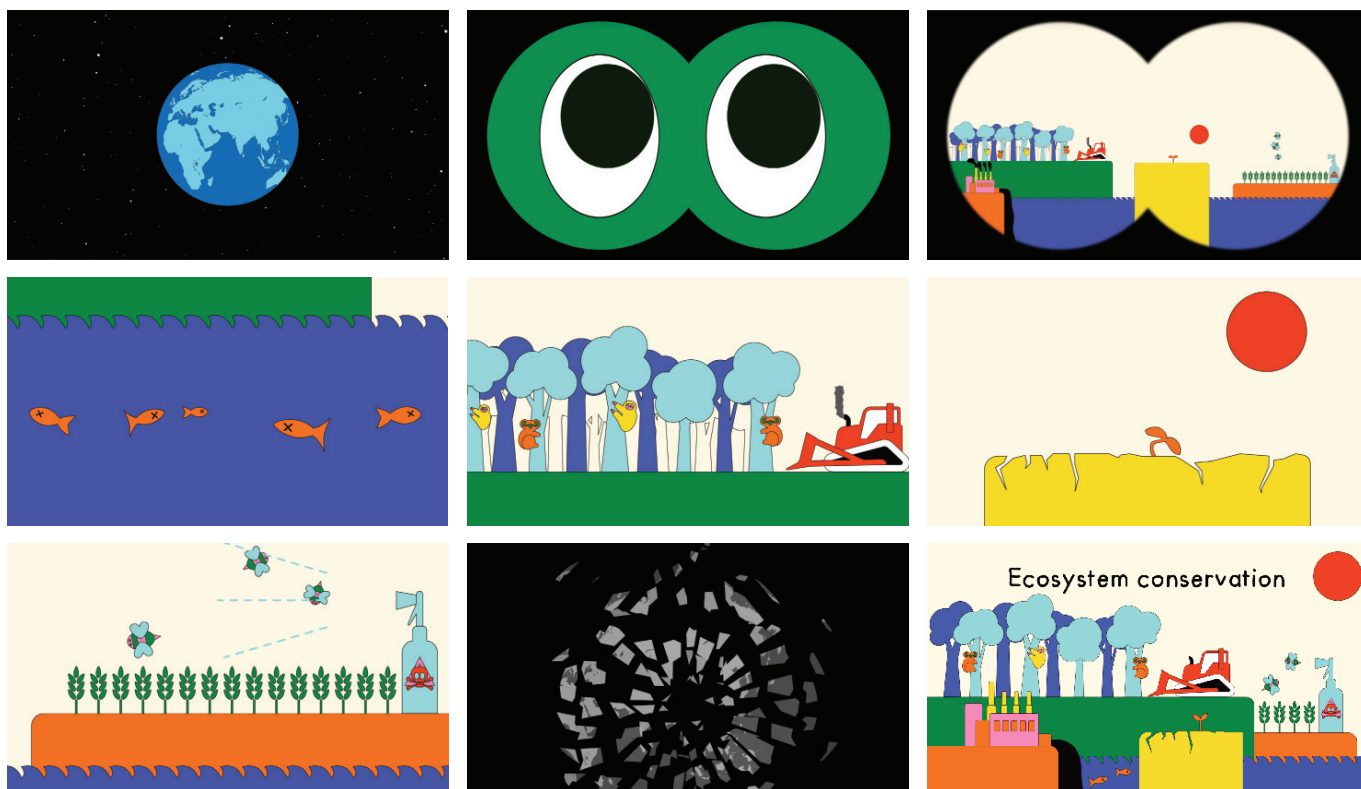


06 MOCK UP





•
They are not toys



•
생태계보전 [ecosystem conservation]

비치코밍 페스티벌 비콤 BECOM



STORY

재난의 쓰레기를 잊지않고 라는 뜻을 가진 비치코밍인 페스티벌을 통해 상소한 환경 운동인 비치코밍을 알리고 남노노스 등급계 비치코밍을 알릴 수 있도록 전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NAMING

Be combing 누구나 비치코밍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Becomting을 줄여 ~되나 라는 뜻의 비콤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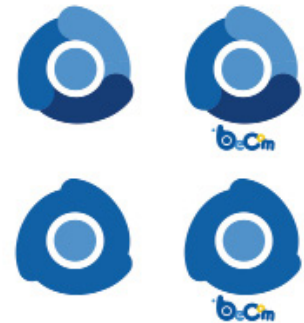


SYMBOL DESIGN



모양이었던 비치가 비치코밍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하며 순환하는 과정을 심볼로 표현했다. 실제 바다 위에서 수집한 색깔과 바다의 이치(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VIATION



LOGOTYPE DESIGN



비치코밍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딱딱한 느낌보다는 둥글고 우연한 느낌으로 디자인 했다. 활활음이 뛰고 힘이 풀려가는 이미지로 표고를 작업했다.

COLOR SYSTEM

#163076 C97 M85 Y31 K0 R22 G61 B118	#105C9B C29 M62 Y14 K0 R16 G92 B155	#4083B7 C72 M41 Y11 K0 R77 G131 B185	#07CBE7 CA3 M7 Y5 K0 R151 G203 B231	#F5D11F L5 M18 Y86 K0 R145 G209 B31
---	---	--	---	---

BENEFIT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상품들

비치코밍 활동을 통해 지급되는 회원카드

해양 환경 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



비치코밍 후에 참여 신청 후 제공되는 기본 키트(봉투, 집게 등)를 비치코밍 활동에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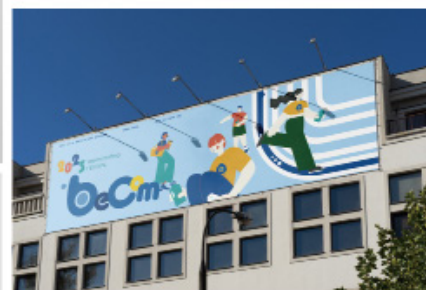
비치코밍 활동이 끝나면 배낭부스로 와서 회합을 받고 참여 굿즈 받아가기



굿즈 및 다양한 축제 이벤트 즐기
주거협업 공예, 비치코밍 쿠키, 제주 특산물 디자인 등

비치코밍 페스티벌 '비콤'

APPLICATION





•
발목



•
15°C



•
식탁 위 미세한 위협

자연은 Ctrl+Z 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쓰레기들이 더 이상 자연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고진흥공사)

- 자연은 'Ctrl+Z'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
MORE TRASH, NO MORE LEISURE

환경보전 홍보 영상툰 나비효과편

CHAPTER 1. 나비효과



CHAPTER 2. 만물의 결과



CHAPTER 3. 1인



EPILOGUE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이 필요에 부족하면 정치 원상시정에 참가한 주민들, 5주째의 실업이라 알고 있었지만, 눈물 쓴 곳은 5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해 환경오염 때문에 인류 대부분이 죽어 멸망한 상태였다. 본이 필요에 부족하면 정치 원상시정에 참가한 주민들, 5주째의 실업이라 알고 있었지만, 눈물 쓴 곳은 5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해 환경오염 때문에 인류 대부분이 죽어 멸망한 상태였다. 본이 필요에 부족하면 정치 원상시정에 참가한 주민들, 5주째의 실업이라 알고 있었지만, 눈물 쓴 곳은 5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해 환경오염 때문에 인류 대부분이 죽어 멸망한 상태였다.

•
나비효과



•
도시 속 자연



여기도 너무 더워



PET

쓰레기 분리수거,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본인의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1위에 달하는 수주하고, 재활용 수거량도 50%로 2위에 달하는 수주 76.3%인 사업장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평가 1등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가 환경을 가꾸고,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줍니다.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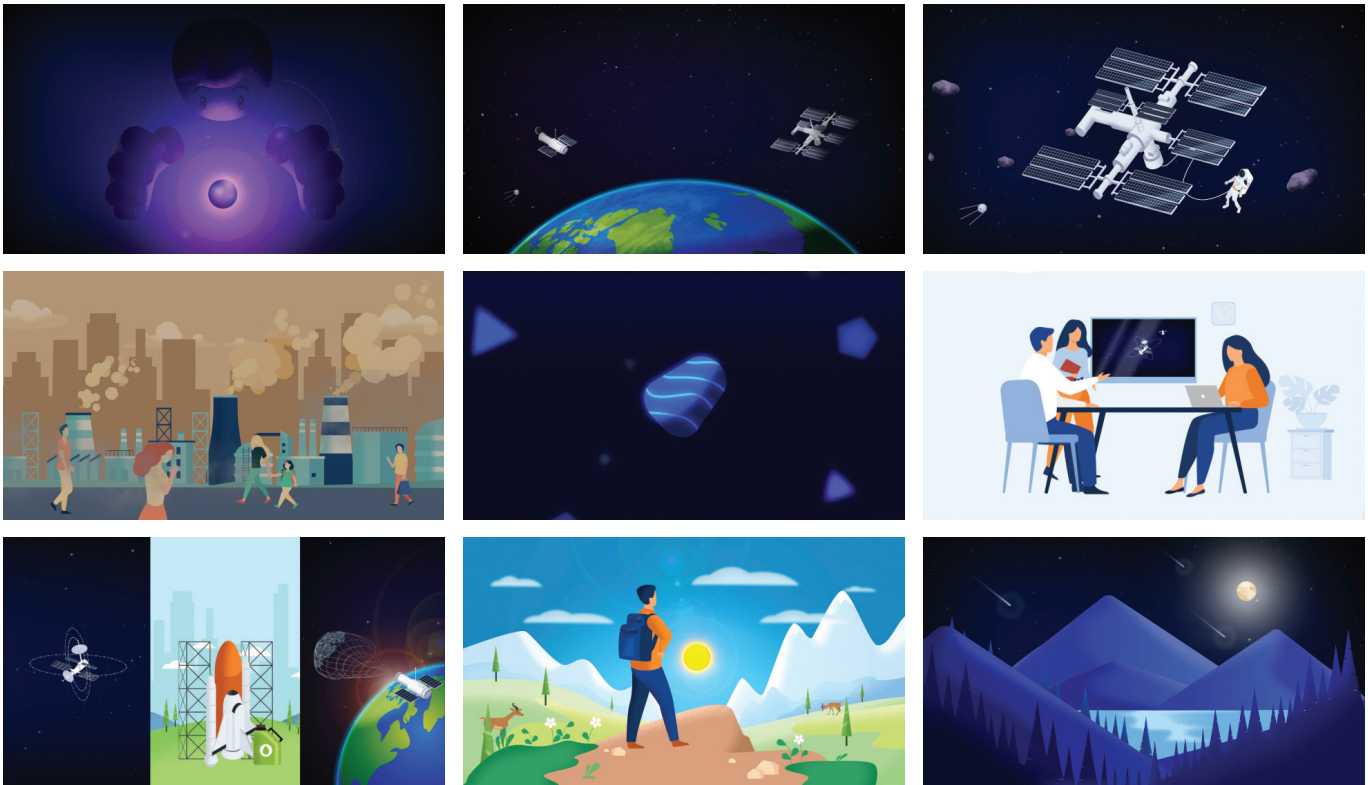
•
미래를 위한 약속



•
The pearl of the future



- Plastic trap



•
Orbital Debris



•
기름 속 갇힌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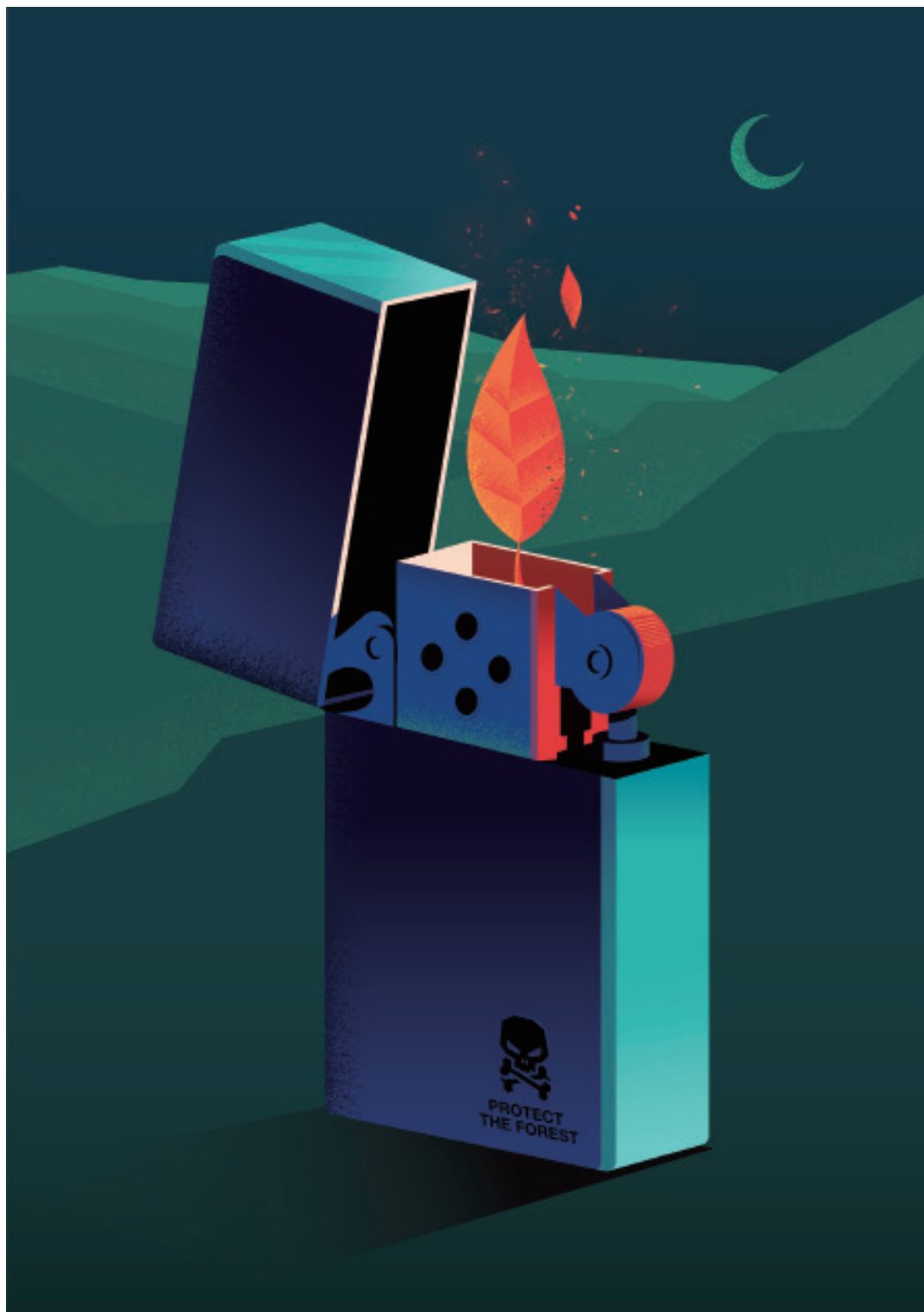
온오프



- 쓰레기, 동물에겐 무기.



•
co-exist



•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 화



•
자승자박(自繩自縛)



•
부서지는 지구의 척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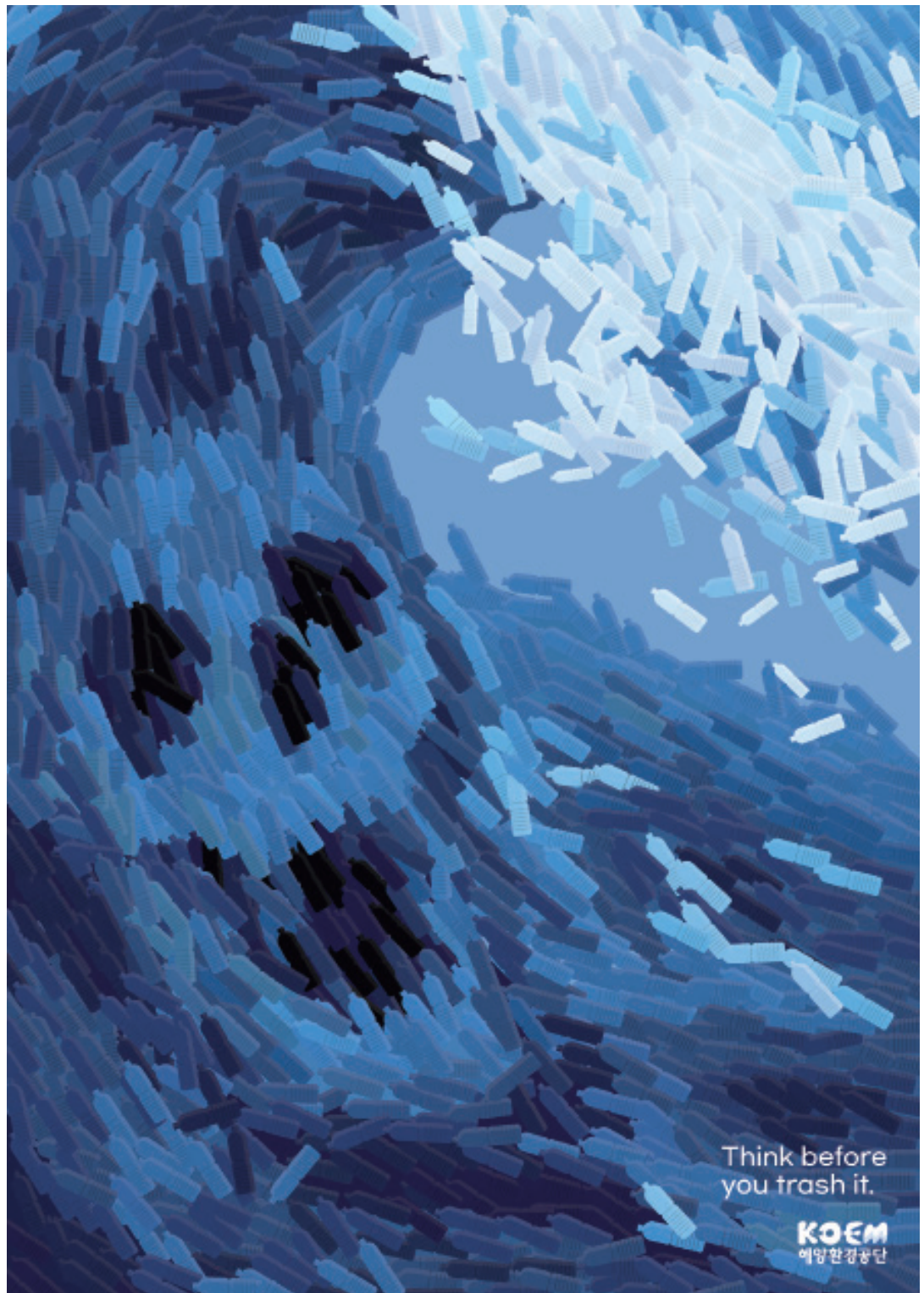
•
삶의 공간



•
쓰레기 먹이



•
최후의 쓰레기 만찬



Think before
you trash it.

KOEM
예망환경공단

•
Think before you trash it.

장수동



•
무분별 벌목의 환경파괴



점점 늘어가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이젠 멈출 때입니다. **kobaco**

•
먹기 싫어요



•
WHAT EVER ARE YOU EATING?



- 지구대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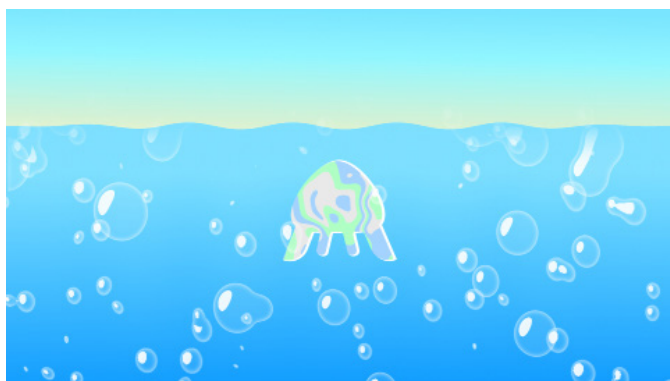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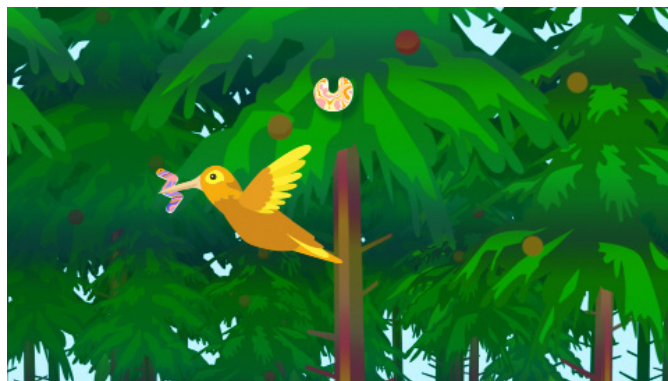
•
SYMBIOSIS



SAVE THE OCEAN.

바다생물의 목, 다리, 무리, 난자 등에 낚시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에 걸리면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해양 자원과 바닷물, 해양생물 자원 하의 쓰레기에서 지켜주세요.

•
SAVE THE OCEAN



•
HUMAN : THE PART OF NATURE



또 하나의 세계지도



•
공장 폐유로 인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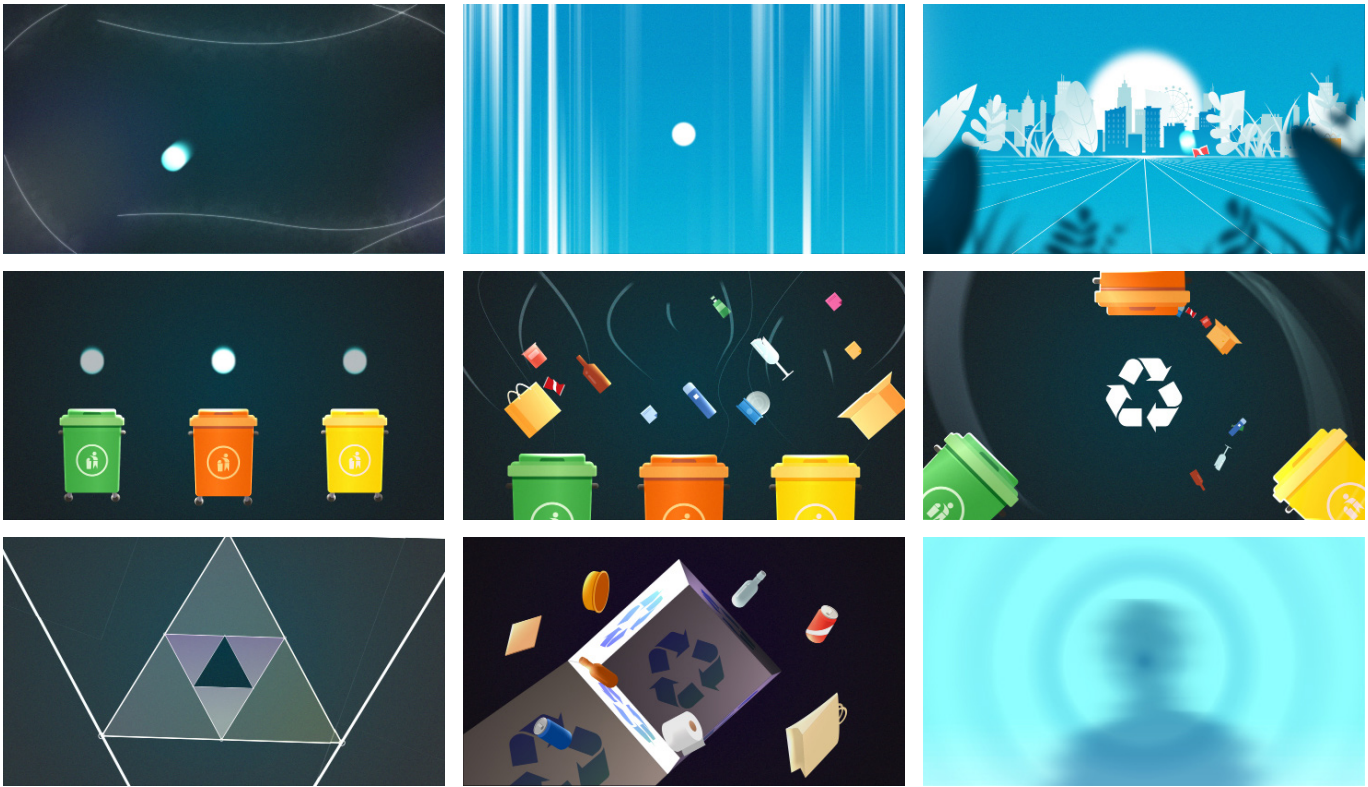
- 가속화되는 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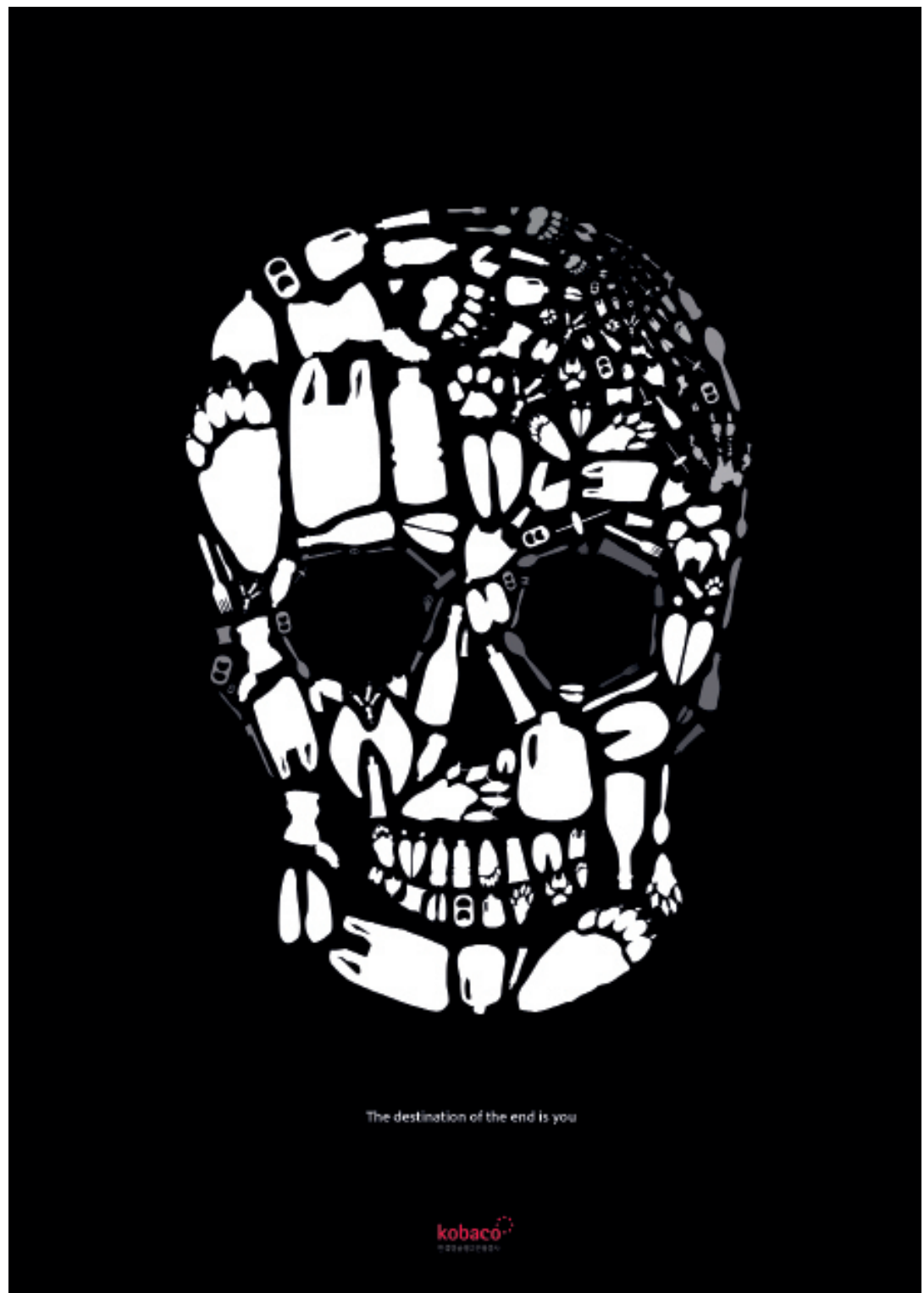
•
HELP



•
아이에게



•
that was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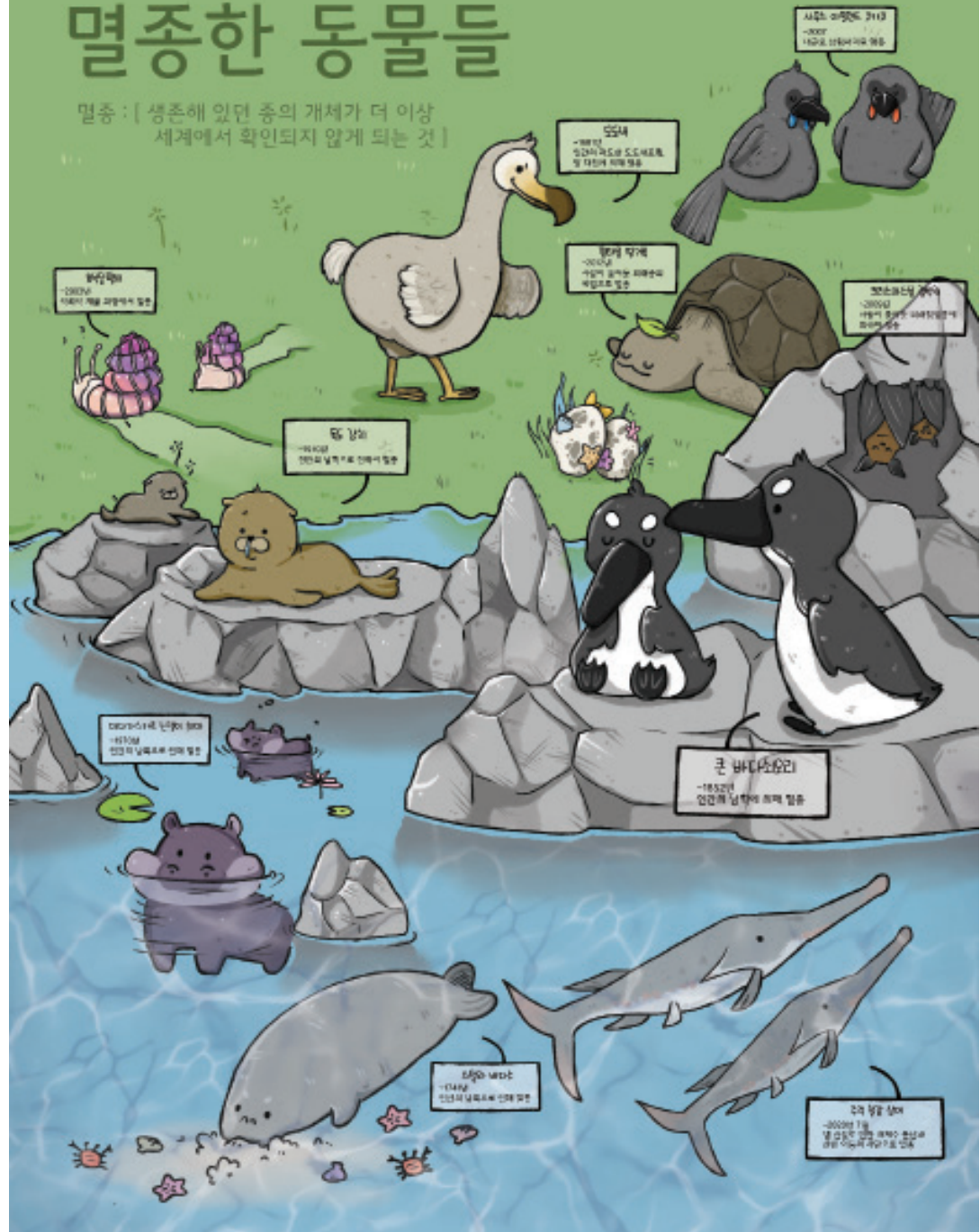
- 종말의 목적지



•
내가 버린 작은 쓰레기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한 동물들

멸종 : [생존해 있던 종의 개체가 더 이상 세계에서 확인되지 않게 되는 것]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한 동물들



•
골든 타임

똑똑, 물이 새는 소리입니다.

물을 아껴 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kobaco

•
지구가 새고 있어요



•
아이들의 등굣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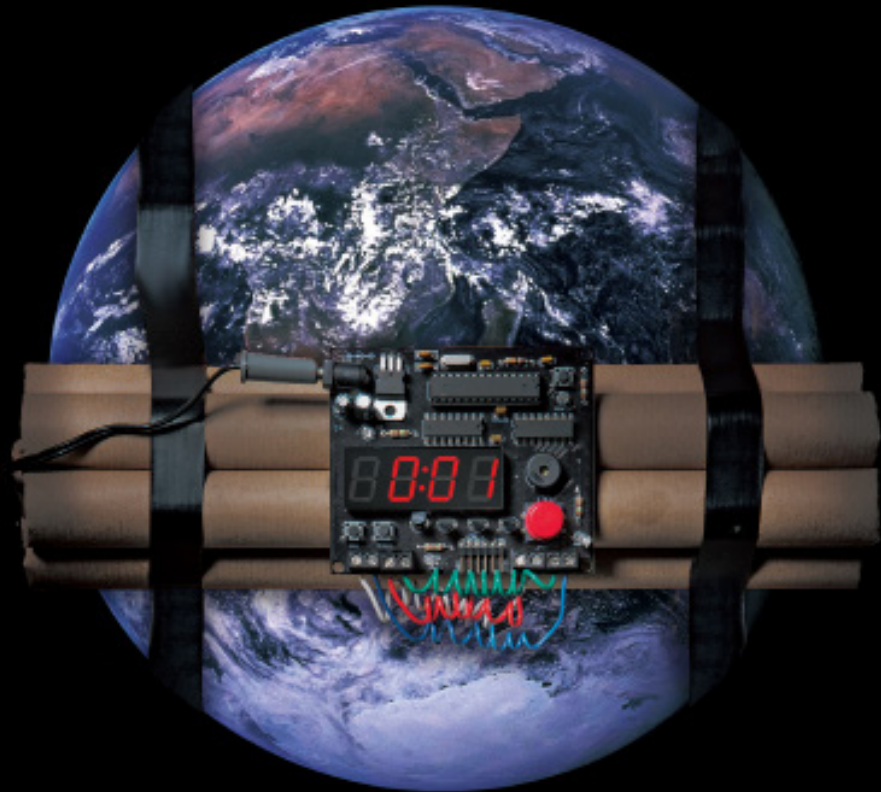


- 과대포장



•
홀로 남겨진 새끼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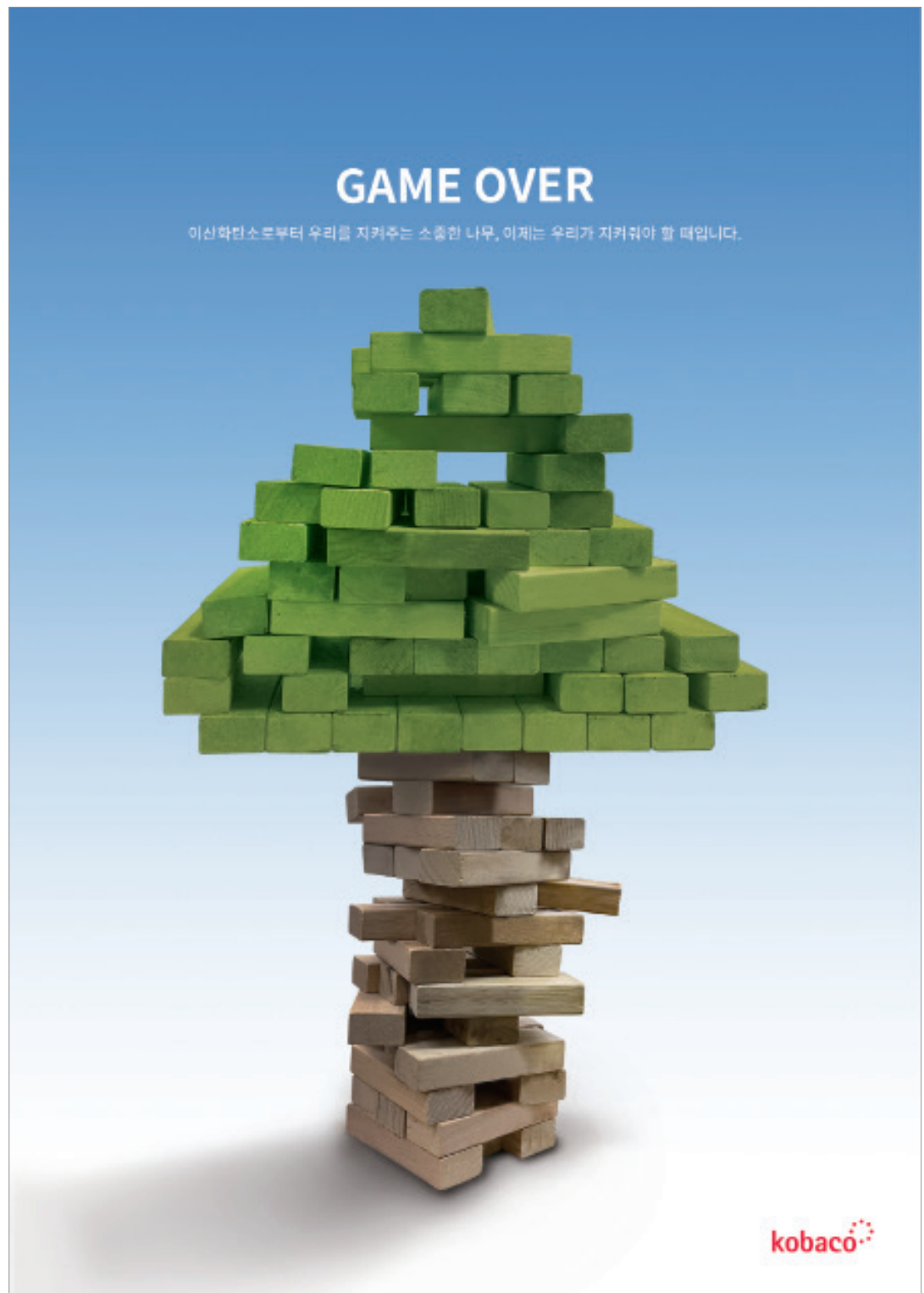
EARTH'S **GOLDEN** HOUR



지구의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 노력해야 합니다

- Golden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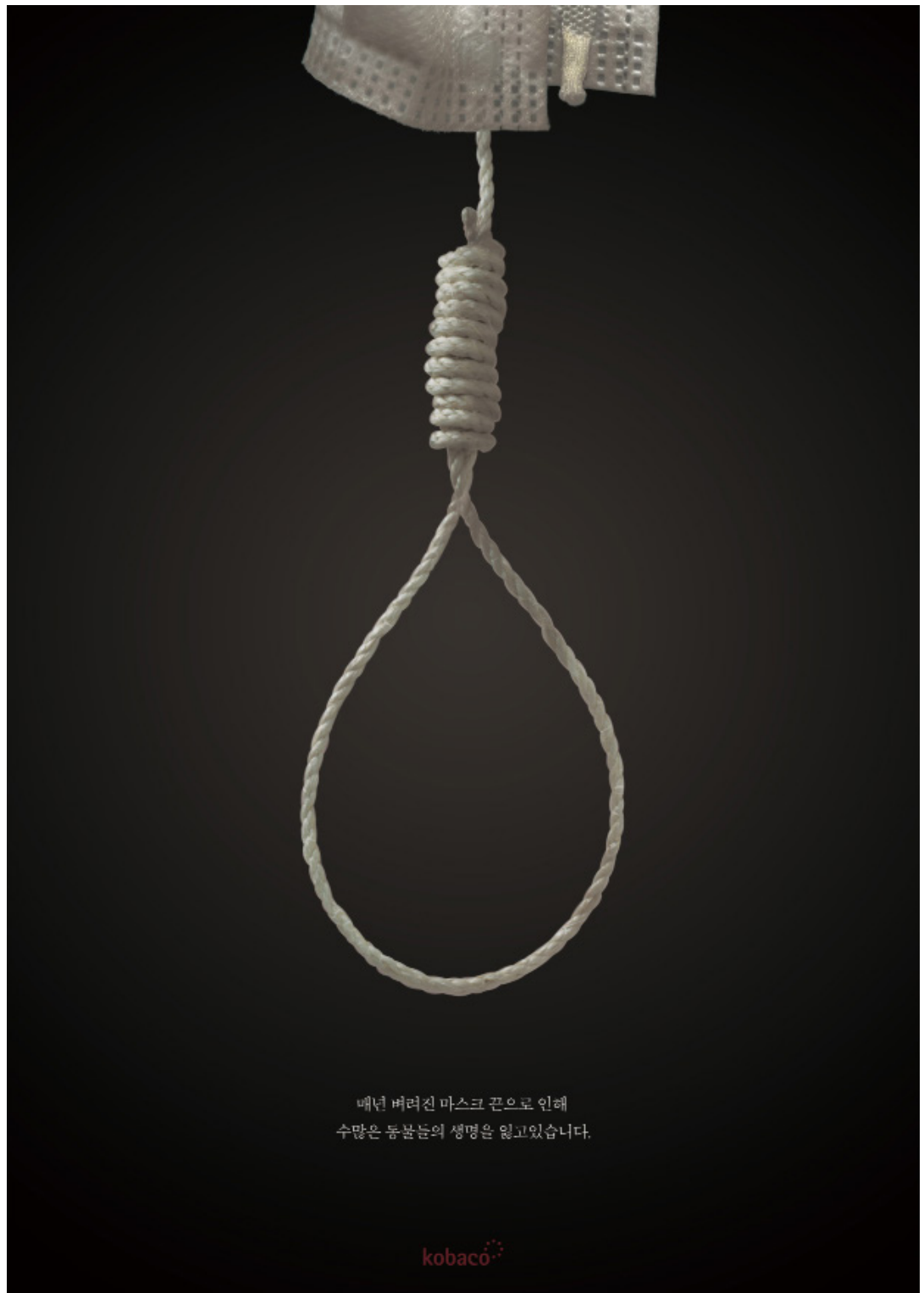
•
GAME OVER



•
로드킬



•
청소하는 나무



매년 버려진 마스크 끈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잃고있습니다.

kobaco

•
무고(無辜)



•
지구의 속사정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폴리젤리와 아름다운 바다 지키기

폴리젤리 캐릭터



Name
폴리젤리 (Poly Jelly)

Concept
산호초, 해초, 연꽃, 해파리 등 해양생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폴리젤리 캐릭터는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지키고, 해양쓰레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호초, 해초, 연꽃, 해파리 등 해양생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해양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폴리젤리 캐릭터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lor

주요색	보조색
HEX: #00AEEF	HEX: #0072B2
CMYK: 100% 100% 100%	CMYK: 100% 100% 100%

Identity

타이틀	서체
본문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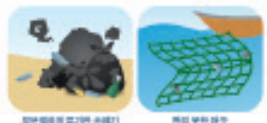
EM 활용?

EM (환경미생물)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로,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EM 활용 사용법

비료와 함께 사용하거나, 물과 혼합하여 식물에 뿌리거나, 토양에 직접 투입합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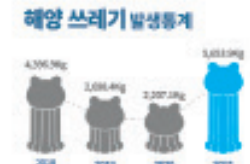
해양 쓰레기 유입경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플라스틱 병, 등)와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낚시망, 등).



해양 개선하기

-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 바다, 강 등 자연환경 지키기
- 해양쓰레기 줄이기

해양 쓰레기 발생통계



연도	발생량 (kg)
2018	4,396.3kg
2019	3,686.4kg
2020	3,207.3kg
2022	3,853.2kg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관광산업 타격 등.

해양 쓰레기 유형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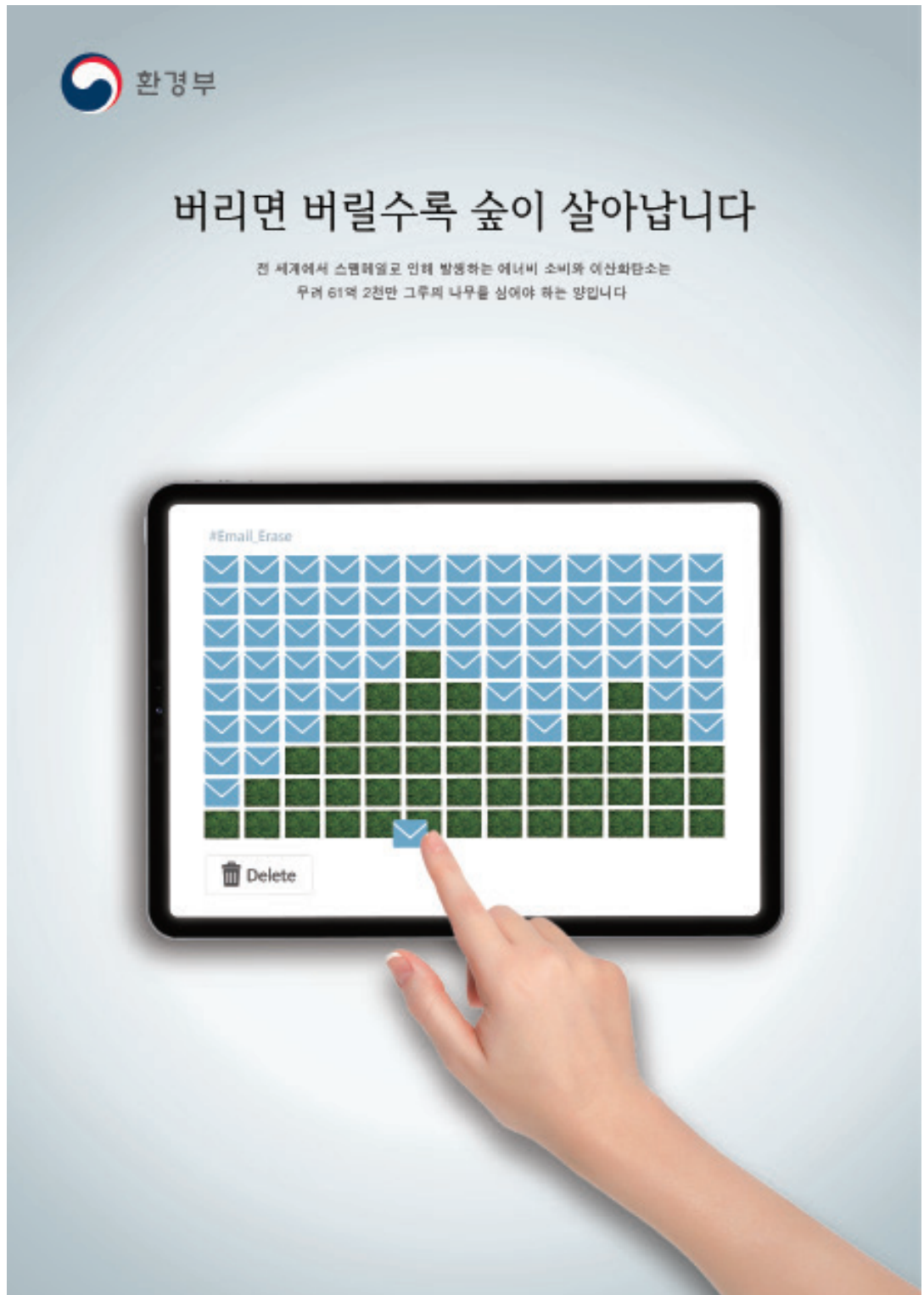
해양 쓰레기 유형별 통계: 플라스틱 (45%), 종이 (25%), 유리 (15%), 기타 (15%).



•
과열



- 지구의 온도



•
Email Erase



•
#doll or family?



•
smoke of pain

73th PROFILE
STUDENT ADRESS BOOK



뽀 준비위원회

STAFF

뽀장	양우열
부뽀장	강혜원
포스터	금지혜
편집	박은빈
영상	김은혜
총무	이다현
준비위원회	지채원 이서경 이서희 임소연 오가영 한효정
지도교수	이종우 임현빈 김민석 정진영 김정훈 교수님

